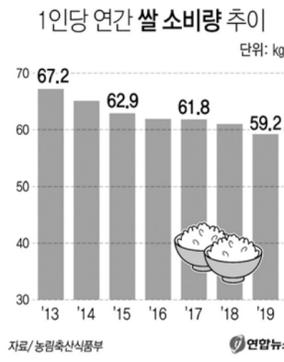


# 하루 한 공기 반...쌀 소비량 30년새 반토막

지난해 1인당 소비량 59.2kg로 전년보다 3.0% 줄어  
1964년 통계작성 후 최소...소비 감소로 쌀값도 떨어져

지난해 쌀 소비량이 통계 작성을 한 1964년 이후 최소를 기록하면서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9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구 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2kg으로 전년보다 3.0% 줄었다. 이는 30년 전인 1989년 소비량(121.4kg)의 절반 수준이다. 가구 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kg을 정점으로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가구 내 1인당 하루 쌀 소비량도 162.1g으로 전년보다 3.1% 줄었다. 밥 한 공기가 100g 정도임을 고려하면 하루 한 공기 반 정도를 먹는 셈이다. 쌀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쌀값도 떨어졌다.

지난 25일 기준 산지 쌀값(정곡 20kg)은 4만748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1원(-1.5%) 떨어졌다. 지난해 전남지역 쌀 생산량은 72만 5000t으로, 전체 생산량(374만4000t) 5분의 1로 가장 많았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지역 양곡(정곡) 재고 물량은 지난 달 말 기준 17만8000t이었다. 최근 3년 간(2017~2019) 평균 재고량(17만1000t)보다 7000t 더 많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쌀 재고량은 전년보다 4000t(2.1%) 줄었다"며 "쌀 소비는 줄고 있지만 전남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4만여t(5.3%) 줄었고 전국적으로도 6만t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추이 단위: kg

이번 쌀 소비 조사에서 제조업에서 제품 원료로 쌀을 사용한 양은 지난해 74만 4055t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쌀 소비량은 2014년 53만4999t으로 전년 대비 증가(1.7%)로 전환한 뒤

2015년 7.6%, 2016년 14.5%, 2017년 7.4%, 2018년 6.8%로 증가하다 지난해 6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제조업 쌀 소비량을 업종별로 보면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이 쌀 5만6007t을 소비해 1년 전보다 24.2% 증가했다. 이 업종에서 쌀은 선식, 누룽지, 찌리얼식품 등에 주로 사용된다. 쌀국수 등에 쓰이는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2만126t·9.2%),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9천280t·4.7%) 등도 지난해 쌀 소비량이 늘었다. 떡류는 지난해 쌀 17만6500t을 소비해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반면 햇반, 삼각김밥, 도시락이나 가정 간편식에 주로 사용되는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은 14만5187t으로 1년 전보다 소폭(-1.6%) 감소했다. 이는 백미만 사용되던 햇반, 도시락 등에 잡곡 사용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48.00 (-37.28)	↓ 금리(국고채 3년)	1.30 (-0.03)
↓ 코스닥	656.39 (-13.79)	↑ 환율(USD)	1185.00 (+7.80)

## 코스피, 코로나 불안에 다시 급락...2150선 붕괴

2148.00...올 들어 최저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불안에 투자심리가 얼어 붙으면서 30일 코스피가 215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올해 들어 최저점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28포인트(1.71%) 내린 2148.0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74포인트(0.17%) 내린 2181.54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웠다. 설 연휴 이후 첫 개장일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며 2180선 밑으로 떨어진 이후 급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해 12월 12일(2137.35) 이

후 최저점(증가 기준)로 떨어진 뒤 올해 최저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전날 1472조1710억원에서 이날 1천446조8640억원으로 하루 사이 25조3070억원이 감소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793억원, 기관은 4417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6631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79포인트(2.06%) 내린 656.39로 종료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 842억원, 기관이 856억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개인은 1770억원을 순매수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협 중앙회장 누가 될까... 오늘 선거

문병완 보성조합장 등 10명 각축  
전국 21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31일 치러진다. 문병완(61) 보성농협 조합장 등 10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대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가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다. 선관위에 최종 등록을 마친 후보는 ▲강호동(56) 경남 합천 울곡 조합장 ▲김병국(68) 전 충북 서충주 조합장 ▲문병완 보성 조합장 ▲여원구(72) 경기 양평 양서조합장 ▲유남영(64) 전북 정읍 조합장 ▲이성희(70) 전 경기 성남 낙생 조합장 ▲이주선(68) 충남 아산 송악 조합장 ▲임명택(63) 전 NH농협은행 연주로 지점장 ▲천호진(57) 전국농협경매발전연구회 고문 ▲최덕규(69) 전 경남 합천 가야 조합장 (이상 가나다순)이다. 강원과 제주주는 후보가 없는 상태. 이들은 정식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지

난 1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0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졌다. 투표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전국 조합장 1118명 중 대의원 292명이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는 통상 5명의 후보가 나왔고 당시에 1차 투표에서 과반 표를 얻어 당선된 경우는 없었다. 권역으로 따져보면 영남권 대의원이 90명(31%)로 가장 많고 호남권 63명(22%), 충청권 56명(19%), 수도권 54명(18%) 등이 뒤를 이었다. 단일화를 거쳐 전남 대표로 출마한 문병완 후보는 5선으로, 농협RPC(미국종합처리장)운영협의회 회장을 맡아 '쌀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그는 ▲아시아 최초 '곡물거래소' 신설 ▲농·축·림에 분야 조합원 자격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경기 전달보다 호전될 것"

### 광주·전남 중기 2월 경기전망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은 경기를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달보다는 약간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체 193개를 대상으로 2월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 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전달보다 3.7포인트 상승한 80.8로 나타났다. SBHI가 100 이상이면 기업경기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78.6) 대비 3.8포인트 오른 82.4, 전남은 전월(74.3) 대비 3.6포인트 상승한 77.9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월(84.1)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82.6으로 3개월 연속 떨어졌다. 비제조업은 전월(71.5) 대비 7.9포인트 상승한 79.4이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 전망(75.8→77.5), 수출 전망(95.7→97.6), 경상이의 전망(74.5→76.2), 자금 사정 전망(71.4→72.0) 모두 전달보다 소폭 상승했다. 고용수준 전망(101.6→101.6)은 전달과 동일하게 나타나 기업의 일손 부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애로(복수 응답)는 내수부진(65.8%), 인건비 상승(50.8%), 업체 간 과당경쟁(50.3%), 판매대금 회수 지연(27.5%), 자금 조달 곤란(25.4%) 순으로 꼽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둘레바람' 기능을 강화한 '2020년형 위니아 에어컨 신제품'을 30일 모델이 선보이고 있다. <위니아딴채 제품>

## 위니아딴채 '둘레바람' 강화 에어컨 신제품 출시

위니아딴채는 사람의 피부에 찬 바람을 직접적으로 접촉시키지 않으면서 실내를 시원하게 하는 '둘레바람' 기능 등을 강화한 2020년형 위니아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제품은 기존 둘레바람에서 간접풍 방식을 더욱 확대했다. 둘레바람 기능을 선택하면 전면부에 있는 두개의 토출구 측면에서 바람이 나와 벽을 타고 거실에 냉방을 전파한다.

한국공기청정협회의 공식 인증을 획득한 공기청정 기능도 탑재했다.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크기의 초미세먼지(PM 2.5)를 99.9%까지 제거하는 필터를 적용했다. 또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NUGU)를 통한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했다. 위니아 에어컨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에어컨 모드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아기모드, 절전제습, 음성안내 기능 등도 갖췄다. 2020년형 위니아 에어컨은 스탠드형 56개, 벽걸이형 30개 등 총 86개 모델로 출시됐다. 위니아딴채는 이번이 최고급 가전제품 '위니아 더 컬렉션'도 새롭게 선보인다. 위니아 더 컬렉션은 2월 말부터 백화점과 전문점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한전, 온실가스 배출없는 친환경 발전기술 개발

한국전력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 발전량을 2배 이상 늘렸다. 30일 한전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매체 순환 연소기술'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화석연료가 공기 또는 산소와 직접 접촉하는 기존 연소방식과 달리 두 개의 반응기 내에서 산소전달 입자가

순환하면서 연료를 연소한다. 기존 LNG 화력발전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한 여러 대형설비가 필요해 비용부담이 있었다. 새 친환경 기술은 이와 다르게 별도의 이산화탄소 포집설비가 필요 없다. '매체순환 연소기술'은 그동안 200kW 연속운전이 세계 최대 용량이었으나, 한전 연구진은 이번에 500kW급 가압 실증에 성공했다. /백희준 기자 bhj@